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완주군-모아종합건설-삼부종합건설 협약 체결

완주군이 35만㎡(10만평) 규모의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 중·소규모 기업체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된다.

완주군과 (주)모아종합건설 및 (주)삼부종합건설은 6일 완주군청에서 완주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해 모아종합건설 박치영 대표, 삼부종합건설 이재호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시행사인 완주군은 단지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및 각종 인허가 지원을 담당하고, 모아종합건설 및 삼부종합건설은 사업 추진 및 입주기업 유치 등 사업에 대

한 전반적인 업무 추진을 각각 수행한다.

특히 완주군은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개발계획 수립 및 각종 용역을 조기 착공, 내년 상반기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은 후 토지보상에 착수해 하반기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들어설 농공단지는 기존 완주산업단지 및 테크노밸리(1,2단계) 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중소 규모의 제조업종 유치가 목적이며, 투자금액 350억원의 사업이 완료되면 100여개 기업체, 8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공단지에는 산업시설용지 20만㎡가 중심축으로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등 제조업종이 입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사통발달 교통망을 갖춘 기업하기 좋은 입지여건과 완벽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박성일 군수는 "광주의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전국을 기반으로 둔 모아종합건설 및 도내에서 가장 분실할 삼부종합건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농공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중소규모 기업들의 공장용지 수급에 도움이 되며, 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명품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원주=이종복기자



진안군은 내년도 국가예산 신규 사업으로 34개 사업 1,258억원을 확보해 지역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진안군 내년도 국가예산 1258억원 확보

기초생활 기반확충·소득기반 등 투입 키로

진안군은 내년도 국가예산 신규 사업으로 34개 사업 1,258억원을 확보해 지역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용담호 주변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90%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6년에 4개 사업 236억원이 반영된 데 이어 2017년에도 5개 사업 510억원이 반영되어 전복과 충청도 식수원인 용담호의 수질개선 및 진안군의 핵심정책인 "아름다운 청정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또한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농촌개발사업도 전년도에 7개 사

업 194억원이 선정된데 이어 내년도 8개 사업 248억원 선정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득기반,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항로 군수의 대표적 공약사업인 부귀산 빛빛고원 조성사업은 서부내륙권 개발사업의 선도 사업으로 문체부 용역을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았으나, 정치권 및 전북도와 의 공조를 통해 국회단계에서 반영,

98억원을 투입하여 마이산과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으로 전북 토탈관광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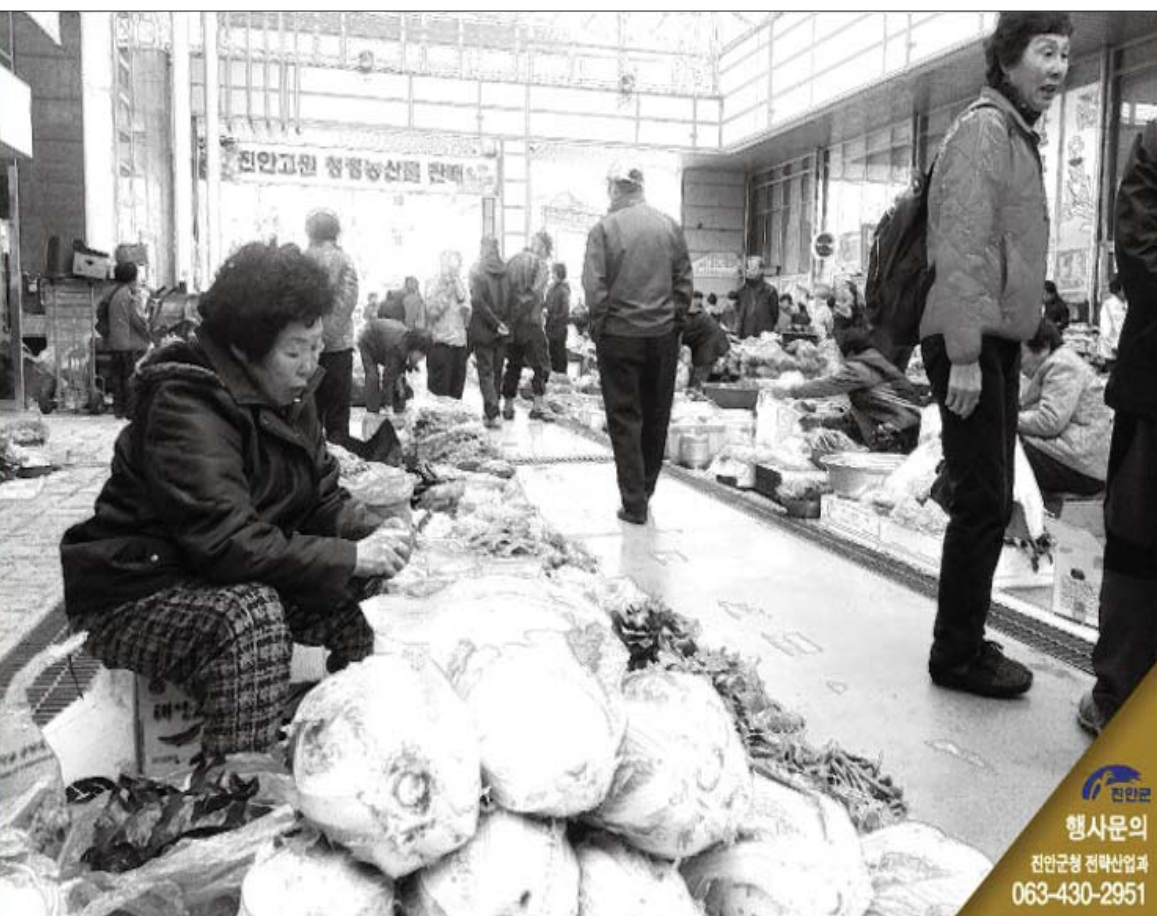
이 같은 성과는 진안군의 전략적이며 치밀한 대응으로 전북도를 비롯한 정치권과의 공조체계를 통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특히 40여 년간의 공작생활을 통한 지방행정 전반에 걸친 해박함으로 군민의 행복과 직결된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전북도, 중앙부처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꺼운 행보를 보여 온 이항로 군수의 결실로 보여 진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군, 당뇨환자 건강음악회 개최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6일 진안 문화의 집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음악회 '더 하우스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성악 앙상블 '더 클라' 연주단이 고함의 봄 외 9곡을 연주했으며, 고혈압·당뇨병 질환자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좋은 시간으로 만성질환자와 가족 간의 소통의 장이 되었다.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2016년에 5,803명의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등록관리 하였고 758명에게 합병증 예방을 위해 안질환 및 만성콩팥병 검사비를 지원하였으며, 내소자 3,474명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여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생활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음악회에 참석한 진안읍 박모씨는 "감미로운 음악의 선율 속에서 고혈압·당뇨병을 잠시나마 잊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항로 군수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음악회에 참석해주신 어르신들과 멋진 공연을 해주신 더 클라 연주단에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음악회가 만성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자기관리에 대한 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성료

영상물 상영과 기념식·결의문 낭독 등 진행

무주군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제15회)가 6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무주군자원봉사센터가 주관(센터장 정진욱)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황정수 무주군수와 유승열 무주군의회 의장, 백경태 도의원과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김훈 센터장을 비롯한 관내 자원봉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영상물 상영과 기념식, 결의문 낭독, 특별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진욱 센터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나눔 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마음대회를 열게 됐다"며 "오늘을 계기로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은 더욱 커지고 자원봉사활동 붐도 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무주양수발전소와 무주군새마을부녀회 이순희 씨, 대한적십자 무주군지부협의회 김영자 씨, 무주군차량보험연합회 김민주 씨가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실현에 기여한 공로로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으며, 서금요법전문봉사단 김영애 씨와 여성자원봉사자 김혜림 씨가 무주군회의의장 표창을, 국화봉사단 윤라용 씨가 전북자원봉사센터이사장 상을, 소비자교육중앙회무주군지회 김영순 씨가 무주군자원봉사센터장상을 받았다.

무주군자원봉사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와 배우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할 것, △자원봉사자로서 감사하는 마음과 양보하는 자세로 본보기가 되자는 뜻을 모았다.

한편, 특별강연 시간에는 진철 정철교육협회 김세환 대표가 "당신의 매력, 무주의 가치, 우리의 매력·진절"이란 주제로 진철의 사회, 문화, 경제, 경영적 기능과 역할을 비롯해 일본과 싱가포르, 프랑스 등 선진국의 미소친절운동 사례, 고객에 대한 정의와 친절명언, 친절이 주는 기쁨과 이익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차요테 시험재배 '성공'

무주군이 열대·아열대성 작물인 종자용 "차요테" 시험재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차요테" 시험재배는 새소득 작목 육성·보급을 위해 올 봄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분양을 받아 실증시험포장 하우스 내에서 진행했던 것으로, 페리노벨론과 여주, 알민 등 군이 최근 몇 년 간 시험재배하며 기후적합성을 확인하고 재배기술을 정립한 다른 작물들과 함께 기후변화와 농산물 수입개방에 맞설 수 있는 차별화된 소득원이 될 전망이다.

중앙열대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차요테"는 사과체소로 열산과 비타민B6,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풍부하고 특히 칼륨이 많이 함유돼 있으며 식감이 사각사각해 오이나 무 대신 요리에 사용하거나 장아찌 재료로 쓰인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복지전달체계 부문 우수기관 선정

3년 연속 달성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완주군의 '복지전달체계 부문' 맞춤형 서비스제공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완주군은 2000만원의 포상금과 함께, 3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게 됐다.

6일 군에 따르면 이 평가는 법적평가로서 사회복지 분야에 뛰어난 실적을 거둔 지자체를 포상하고 해당 우수사례의 전국 전파를 통해 전체적인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역점사업이다.

완주군은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2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3500만원의 포상금을 확보한 바 있다.

이런 결과는 완주군이 그동안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울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관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것이 좋은 결실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주=이종복기자



장수후지사과 대표과실 특별상 수상

장수사과 만생종인 후지사과가 전국과일대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며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대표과실 선별대회'에서 장수군 전대호(신농영농조합법인) 농가의 후지사과가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번 결과는 종중 조종생종 홀로품종 중심에서 만생종인 후지품종까지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이번 평가에서 당도, 과중 등 계속심사와 정형과, 착색정도, 심미 등 외관심사에서 총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수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성장 소득 작목 육성의 일환으로 과수산업 기반 확대를 위한 과수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과 FTA 대응 과수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